

해, 달, 세켈

-아세르 인트레이터

달이 해보다 몇 배나 더 작은데도,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 눈에는 달이 태양 전체를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 세켈 동전도 해보다 수십 억 배나 작은데도, 사람이 반 세켈 동전을 팔 길이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고 해나 달을 보면, 해나 달만한 크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와 달과 반 세켈 동전 모두가 똑같은 크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가까이 있는 것은 분명히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것, 소리, 모든 형태의 방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예수아께서도 이런 영적인 원근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 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든 내가 하는 옳은 일이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만,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옳은 일은 나에게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잘못이 나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이 하는 잘못은 나에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였을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줄이고, 상상력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누가 애통하는가?

-로니 레주완 Roni Rejuwan, 탈 로빈 Tal Robin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라- 속 12:10”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어서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드”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애통은 오랫동안 그분을 거절하고 대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께 돌아선 것을 회개하는 징표인 듯합니다. 여기에도 더 상세한 예언이 더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무리지어 애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속 12:12, 14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루살렘 및 주변 지역에 있는 극정통 유대교 분파들은 서로 분리된 “궁정” 혹은 소사회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은 흥미롭게도 어릴 때부터 학교와 회당, 시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는 일에 훨씬 더 극단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뉘어져 애통하는 것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는 것을 오늘날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는 극정통 유대교 여러 분파들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리핀 재해

-코디 아처 Cody Archer

UN 에 따르면, 이번 주 필리핀을 강타한 거대 태풍 하이얀 Haiyan 으로 인해 430 만 명이 피해를 입고, 65 만 명이 피난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원조를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 주 UN 이스라엘 대사 론 프로소르 Ron Prozor 는 이스라엘이 필리핀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DF 는 두 대의 보잉 747 기에 병사 147 명과 의사, 간호사, 긴급 의료원 234 명과 함께 최신식 이동병원 설치를 위한 설비를 보냈습니다. 슬프게도 중동의 석유 부호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는 이 재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도착하는 이스라엘 팀과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합시다.

성경 전시회

이번 주 이스라엘에서는 전 언론 매체에서 성지 박물관 the Bible Lands Museum 에서 새로 열리는 전시회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 광고 문구는 이렇습니다: “책 중의 책 – 타나크(구약)와 신약”. <제루살렘 포스트>는 이 전시회에서 200 종 이상의 최고 희귀 성경 사본을 전시하는데, 그 중에는 70 인역의 원본 조각과 가장 초기의 신약 성경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 필립 부코소바비치 Filip Vukosovavic 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신학적 원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땅이라는 똑 같은 지리적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강력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전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성지 박물관장 아만다 바이스 Amanda Weiss 는 말했습니다. 성지 전시회가 성공하고 널리 알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